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9월 5주~10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10월 경제 동향

- 베트남, '25년 3분기 경제성장률 8.23% 기록
 -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23% 증가해 10년래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성장률을 달성
 - '25년 1~9월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85% 증가하여 코로나 19 착시효과로 급증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지난 11년래 동기 최고치 기록
- '25년 1~9월 교역액은 USD 6,806.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
 - 수출은 USD 3,487.4억, 수입은 USD 3,319.2억으로 각각 16%, 18.8%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는 USD 168.2억 기록
 - 이 중 FDI 기업의 무역흑자는 USD 370.8억, 현지 기업의 무역적자는 USD 202.6억 기록
- '25년 1~9월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USD 285.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 '25년 1~9월 FDI 집행액은 USD 18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여 5년래 동기 최고치 기록
 - 투자국별로는 싱가포르(27.7%), 중국(23.3%), 홍콩(8.5%) 순
- '25년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전월과 같은 50.4로 3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며 경기 확장 국면
 - PMI는 각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업계 동향 지표로 50 미만은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
- '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2%, 전년 동월 대비 3.38% 상승
- '25년 1~9월 베트남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
 - 1~9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VND 830만(USD 315) 기록

- 베트남, 암호화폐 5년간 시범운영 승인
 - 호 득 썩 부총리는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한 베트남 내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5호(05/2025/NQ-CP)에 서명·공포
 -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베트남 기업으로 한정되며, 최소 자본금 VND 10조를 보유해야하고,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나 베트남 동을 제외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
 - 결의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 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투자자 간 거래가 허용
 - 베트남 금융권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지만 시장 진출을 희망 중인 기업 대부분이 자본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베트남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테콤은행, VIX증권, HVA그룹 등 3곳이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군대은행과 VP은행, SSI증권 등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
-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에 최대 USD 920억 투자 필요
 - 농업환경부는 팜 민 쩐 총리가 승인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개정 국가적응계획(NAP)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
 - 보고서에 명시된 기후 적응 과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USD 550억~920억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
 - 정부는 정책 개발과 재난 대응 프로그램 시행, 국제 협력 확대, 그리고 대중 인식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입장이나, 오래된 법적 체계와 제한된 재정 자원, 특히 예측 및 조기 경보 분야에서 과학 기술 활용 부족과 기업 및 지역 사회의 역량 동원 부족 등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언급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베트남, 2025년 지방혁신지수 발표
 - 지방혁신지수(PII)는 혁신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역 경제의 성과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책 입안자와 지방자치단체 지도부에게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 촉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
 - 올해 하노이시는 3년 연속 종합 1위 기록했으며, 호치민, 꽝닌, 하이퐁, 후에, 박닌, 흥옌, 다낭 등의 순으로 상위 지방 기록
- 베트남, 내년 중 국영 부동산거래소 시범운영 계획
 -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국영 부동산거래소는 투기와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중 출범해 2년간 시범 운영예정이며 부동산 거래, 감정 평가, 법률·재무 절차, 마케팅 등을 담당할 예정
 - 정부는 2026~2027년 시범 사업 기간 플랫폼을 통해 기존 및 미분양 주택, 기술 인프라를 갖춘 주거 사업의 토지사용권, 디지털화된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예정
- 팜 민 쩌 베트남 총리,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
 - 팜 민 쩌 총리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문제로 계류중이거나 진행이 더딘 사업에 대한 신속한 장애물 해소, 건설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재고 부동산 관리 만전 등을 유관 부처 및 기관에 지시
 - 건설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재고 부동산은 25,300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은 10,290채로 9% 가까이 증가했고, 아파트 3,287호로 40% 넘게 증가
- 베트남 차관급 고위공무원, K-혁신정책 연수 방안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베트남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의 요청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차관 등 고위공무원 13명 초청연수를 실시
 - 한국의 성공적인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디지털전환 분야 정책경험 공유

3 베트남 기타 동향

- 하이퐁시, 연내 자유무역지구 설립 추진
 - 하이퐁 자유무역지구는 남부 해안경제구역과 딘부-깃하이(Dinh Vu-Cat Hai) 경제구역 일대 약 6,292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북부에 조성되는 최초의 종합 자유무역지구로, 하이퐁과 북부 지역의 산업-물류 가치 사슬을 재편하고,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호치민시, 마이찌토 대로 6km 구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추진
 - 호치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전환하기 위해 도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마이찌토대로에 약 6km 길이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예정
 - 호치민시는 버스와 지하철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말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자전거 모델을 도입한 바 있음
 - 이 밖에도 호치민시는 지하철 1호선을 따라 락찌엑교부터 사이공교까지 보응웬지압 일대에 약 4km 길이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
- SK그룹, 베트남 에너지·반도체 투자 확대 본격화
 - 제80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르엉 쯔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뉴욕에서 최태원 SK 회장 회장을 만나 투자 협력 방안 논의
 - 르엉 쯔엉 주석은 SK그룹의 베트남과의 적극적인 협력, 특히 베트남국가혁신센터(NIC)의 반도체 엔지니어 교육 분야에 대한 참여도 심화와 강력한 지원,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와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있어 혁신 솔루션 공유를 강조
 - 최태원 회장은 SK는 현재 LNG 발전 부문의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 중으로, 일부 프로젝트를 녹색 성장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베트남에서 포괄적인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국가 발전에 SK가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롯데, 호치민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철수 공식화
 - 에코 스마트시티의 사업 주체인 롯데프라퍼티호치민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서를 제출
 -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는 투티엠신도시 2A구역 7.4ha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0층 높이 쇼핑몰과 오피스, 호텔, 아파트 및 레지던스 등 11개동 건설을 골자로 한 약 USD 10억 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당시 투티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 바 있음
 - 롯데는 '17년 7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본 사업에 대한 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9월 기공식을 개최했으나, 이후 여러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며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롯데는 사업 재개를 위해 그룹 계열사 간 지분을 조정 허용·외부 자본 유치·재정 부담 조정·토지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등 법적 장애물 해소를 당국에 반복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런 가운데 호치민시는 에코 스마트시티 부지 가격을 사업 추진 당시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확정 발표 하였으며, 이는 통상 투자금 납부 이후 1년 내 마무리되는 토지 감정 평가가 7년여 만에 마무리된 것
 -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의 판 반 마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절약 및 낭비 방지법 초안에 대한 논평에서 롯데의 호치민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 철수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경우 토지 감정 평가와 토지 사용료는 오래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며 롯데는 사업 지연이 회사의 귀책이 아님에도 수천억동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함. 이는 기업 환경과 투자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 당국과 담당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롯데가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 철수 방침을 호치민시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샤인그룹-디아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시당국에 타진한 상태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하이퐁 편짜오 LNG 발전소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VND 178조 (USD 67.4억)
- (사업내용) 발전 용량 4800MW, 부지 규모 100ha
- (추진계획) '25.9. 착공 / '30. 완공 목표

- (주요사항)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과 빈그룹 자회사 VinEnergo가 합작투자해 건설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 LNG 발전소
- 빈그룹의 부동산 자회사인 빈홈이 개발한 편짜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발전소 가동 시 연간 192억kWh의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공급 예정

② (베트남) 동나이성, 깃라이대교 착공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VND 18조 (USD 6.8억)
- (사업내용) 총 연장 11.6km(교량 4.7km), 왕복 8차선
- (추진계획) '26. 착공 / '28. 개통 목표

- (주요사항) 깃라이대교는 소아이랍강을 가로질러 동나이성과 호치민을 잇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룡탄공항과 호치민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동나이성 산업 중심지인 년짜 지역과 1번 및 51번 국도, 호치민-룡탄 고속도로를 잇는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
- 제1건설총공사(CC1)가 PPP 방식의 BOT/BT 국비 투자 또는 BOT 국비 투자, 토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BT 투자 등 3가지 옵션을 제시